

LG전자, 홈 로봇 ‘클로이드’ 공개 가사노동 없는 새로운 일상 제안

미리보는 CES 2026

인간과 교감하며 다양한 업무 수행
청소·요리·가전제어·비서 등 가능
“제로 레이버 홈’ 향한 노력 지속”

LG전자가 상황에 따라 가전을 제어하고 가사 업무를 수행하는 홈 로봇을 선보인다.

LG전자는 오는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서 홈로봇 ‘LG 클로이드(LG CLOiD)’를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LG 클로이드는 이번 CES에서 AI 홈 로봇의 역할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스케줄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 작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에 맞춰 여러 가전을 제어하며 가사일도 직접 수행하는 비서 역할을 해낸다.

관람객은 LG 클로이드로 한층 가까워진 ‘제로 레이버 홈’의 구체적인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예시로 클로이드는 출근 준비로 바쁜 거주자를 대신해 전날 짜놓은 식사 계획에 따라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고 오븐에 크루아상을 넣으며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차 키와 프리젠테이션용 리모컨 등 일정에 맞춰 준비물도 챙겨 전달한다.

이와 같은 동작들은 상황을 복합적으로 인식하는 능력, 거주자의 라이프스



LG전자의 ‘LG 클로이드’가 세탁 완료된 수건을 개켜 정리하는 모습. /LG전자

타일을 학습하는 능력, 정교하게 움직임을 제어하는 능력의 총체적인 결합으로 가능하다.

클로이드는 머리와 두 팔이 달린 몸체, 휠 기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하체로 구성된다. 허리를 세우는 각도를 조절해 105cm부터 143cm까지 키 높이를 스스로 바꾸며, 약 87cm 길이의 팔로 바닥이나 높은 곳에 있는 물체도 잡을 수 있다.

몸체에 달린 두 팔은 어깨 3가지(앞뒤·좌우·회전), 팔꿈치 1가지(굽혔다 펴기), 손목 3가지(앞뒤·좌우·회전) 등 총 7가지 구동 자유도(DoF)로 움직인다. 이는 사람 팔의 움직임과 동일한 수준이다. 5개 손가락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관절을 갖추고 있어 섬세한 동작이 가능하다.

하체에는 청소로봇·Q9·서빙로봇·배송로봇 등을 통해 발전시켜 온 휠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했다.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어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이 갑작스럽게 매달려도 균형을 쉽게 잃지 않고, 위아래로 흔들림이 적어 정교하고 자유로운 상체 움직임을 뒷받침한다.

머리는 이동형 AI홈 허브로 개발된 ‘LG Q9’의 역할을 수행한다. 로봇 두뇌인 칩셋, 디스플레이와 스피커, 카메라와 각종 센서, 음성 기반의 생성형 AI 등이 탑재됐다.

LG전자는 칩셋에 자체 개발한 시각 언어모델(VLM) 및 시각언어행동(VLA) 기술을 적용했다. 퍼지컬 AI 모델을 기반으로 가사 작업 데이터를 수만 시간 이상 학습시켜 홈로봇에 최적화한 기술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로봇 사업을 겨냥해 로봇용 액추에이터 브랜드 ‘LG 액추에이터 악시움’도 처음 공개한다. 액추에이터는 회전력을 만드는 모터, 전기 신호를 제어하는 드라이버, 속도를 조절하는 감속기 등을 합친 모듈로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한다.

LG전자 H사업본부장 백승태 부사장은 “인간과 교감하며 깊이 이해해 최적화된 가사 노동을 제공하는 홈로봇 ‘LG 클로이드’를 비롯해 ‘제로 레이버 홈’ 비전을 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국내 車업계, 보조금 공백 메운다 자체 할인 등 새해 구매혜택 확대

르노코리아 전기차 일부 자체 보조금
한국GM 에스컬레이드 등 현금 할인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새해를 맞아 자체 보조금과 금융 혜택을 제공하며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는 기존 보조금 지원에 이어 새해 첫 달 구매 고객을 위한 혜택을 확대한다.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는 새해 1월 할부 구매 시 3년 3.3%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할부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해도 금리는 3.9%다. 일반 구매 고객에게는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E-Tech 모델 구매 시 각각 190만원과 90만원의 특별 혜택이 제공된다.

쿠페형 SUV ‘아르카나’는 1%대 정액 할부상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아르카나 1.6 GTe 모델을 대상으로 최대 3년까지 1.99% 할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른 1월 최대 혜택 규모는 270만원이다.

준중형전기 SUV ‘세닉 E-Tech 100% 일렉트릭(이하 세닉 E-Tech)’ 구매 고객을 위한 르노코리아의 자체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지난 연말 고객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1월에도 계속된다. 르노코리아는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소진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연말·연초에도 부담 없이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일부 물량에 대해 한시적인 자체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

세닉 E-Tech 구매고객을 위한 르노코리아의 자체 보조금은 기존 고객들이 거주 지역별로 지원받을 수 있었던 국비·지자체 보조금 총액의 전국 평균치인 800만원 규모다.



르노코리아 2026년형 르노 그랑 콜레오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

한국GM 산하 럭셔리 브랜드 캐딜락은 플래그십 SUV와 럭셔리 전동화 모델을 합리적인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 SUV 리릭(LYRIQ)은 최대 1700만원의 현금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여기에 36개월·48개월·60개월 무이자 제휴 할부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전동화 모델에 대한 고객의 접근성과 구매 선택 폭을 한층 넓혔다.

풀사이즈 럭셔리 SUV의 기준을 제시하는 더 뉴 에스컬레이드 ESV 구매 고객에게는 500만 원 현금 할인과 함께 평생 엔진오일 무상 교체 혜택(최대 10회)이 제공된다. 또한 36개월·48개월·60개월 저리 제휴 할부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의 구매 계획에 맞는 금융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정부 ‘항공사 운수권 배분기준’ 개편

LCC업계, ‘정비 체계·지연 대응’ 경쟁력 부상

안전성 배점 35점→40점 상향 조정
업계, 정비센터 신설 등 대응 나서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의 정비 인력과 체계, 지연 대응 능력을 운수권 평가 항목에 본격 반영하면서 각사별 안전 관리 수준이 노선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총 정비인력과 시간을 뜻하는 정비 공수(맨아워)를 기준으로 정비 인력을 산정·운영하고, 정비 인프라 투자를 이어온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새 평가표에서 관리 수준이 평가 점수로 반영될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여객기 참사 등을 계기로 운수권 배분 기준을 지난달 30일 개편했다. 개편안에 따라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를 낸 항공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간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된다. 운수권 평가에서 안전성 배점은 기존 35점에서 40점으로 확대됐으며, 항공기 대수당 정비 인력 현황과 전년 대비 정비 인력 증가율이 정량 평가 항목으로 신설됐다. 항공안전교육 등 현안 대응 노력과 난기류 대응 노력도 정성 평가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명령 이후 개선이 지연될 경우 감점을 확대하고,

해외 외주 정비를 국내로 전환하면 국가 정책기여도 항목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존 노선 지연 감소 노력과 장기 지연에 대한 대응 능력, 이용자 보호 조치 역시 평가 대상에 반영된다.

주요 LCC들은 이미 맨아워 기준에 따라 정비 인력을 산정·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535명)은 고시 기준을 50~60명 상회한다고 밝혔고, 이스타항공(약 250명)은 채용을 이어가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530여명, 진에어는 327명(지난해 11월 말)으로 집계됐으며 4개사 모두 권고·고시 기준을 충족(또는 상회)한다는 입장이다.

정비 인력 확충과 함께 항공사들은 지연 감소와 운항 안정성 제고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정비 인력 증가에 따라 지난해 1~11월 정비 지연율이 0.52%로, 지난 2024년 동기(0.89%) 대비 0.37%포인트 낮아졌다. LCC 최초로 국토교통부의 정비전문교육기관(ATO) 인가를 받아 정비 교육 체계를 강화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미국 보잉과 조종사 역량 기반 훈련·평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회사는 정비 인력을 560명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유

지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김포국제공항에 약 1700평 규모의 통합 정비 센터를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부품 관리와 항공기 점검·수리, 정비 교육을 한 곳에서 수행하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티웨이항공은 최근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했으며, 해당 자금은 항공기 정비 충당금 적립과 항공기 임차료 등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약 2만평 규모 부지에 자체 항공기 정비 격납고를 구축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시설은 오는 2028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진에어는 B777 등 대형 기체의 중정비를 대한항공에 의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운수권 배분 기준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제주항공 등 주요 LCC들은 고시 기준보다 많은 정비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으로 정비 인력뿐 아니라 난기류 대응이나 현안 대응 노력 등 운영 전반의 관리 체계가 함께 평가 대상에 포함된 만큼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까지 포함한 관리 역량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le@

개소세 인하 연장… 친환경차 세제혜택 일몰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 촉진 등 추진

2026년부터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자동차 관련 제도가 대대적으로 변화된다.

4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바뀌는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촉진, 배터리 안전성 강화, 친환경차 세제 혜택의 단계적 종료 등이다.

자동차 세제 부문에서는 개별소비세 30% 인하로 승용차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유류세의 탄력세율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부문에서는 기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내연차를 폐차 혹은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시 보조금을 신설해 최대 추가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소형 전기승합차, 중·대형급 전기 화물차, 어린이통학 소형 승합차 등 신규차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친환경차(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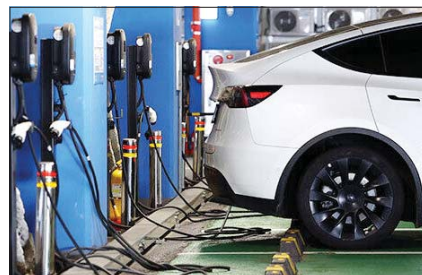
국도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되며, 감면율은 40%에서 30%로 조정된다.

자동차 환경규제 부문에서는 제작사가 저·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2030년에 50% 이상 판매하도록 보급목표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며, 자동차(승용차)에 대한 평균 연비 및 평균 온실가스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자동차 관리·안전기준 부문에서는 제조사, 용량, 전압 등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 제공이 6월부터 의무화되고, 제작 결함에 대한 부적합 기준이 추가되는 등 관리 기준이 시행된다.

또 할당관세 품목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팩 케이스 및 쿨링블록 제조용 알루미늄 합금·판·시트·스트립 등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이 신규 추가되어 영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올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 촉진 등 자동차 관련 제도가 대대적으로 변화한다. 사진은 서울에 한 전기차 충전소.